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70호 [무게 제25779호] 주제 106 (2017)년 9월 27일 (수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위대한 병진의 보검을 억세게 틀어쥐고 미제의 단말마적인 핵전쟁광증을 무자비하게 쳐갈기자

반미대결전에 총결기하여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평안북도, 황해북도, 강원도군중집회 진행

은 나라 전체 인민은 신성한 주권국가 상대로 인류사에 일찍이 있어본적 없는 특대형도발을 걸어온 불구대천의 원수 미제를 지구상에서 완전히 쓸어버린 딸적의 의지로 심장의 피를 떨면서 싸우고 있다.

주체조선의 자주권, 생존권, 발전권을 말살하려고 극악무도한 반공화국 《제국주의》를 조작하다못해 수만만 우리 인민을 멸살시켰다는 천인공노할 망발까지 공공연히 꾀치며 부나비같이 덤벼드는 세계최악의 불쌍배국가 미국의 미치광이무리에게 과연 누가 절멸되는가를 똑똑히 알게 해주겠다는 것이 우리의 민심이요 천심이다.

반미대결전에 총결기하여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평안북도, 황해북도, 강원도군중집회가 25일에 각각 진행되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집회들은 《천만이 총족한 피리》 노래 부름으로 시작되었다.

### 평안북도에서

평안북도군중집회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의 성명을 도당위원회 위원장 김승호동지가 낭독함에 이어 도당위원회 부위원장 리성근,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정경일, 로동적위군 지휘관 한학남, 도청년동맹위원회 1비서 백학동이 연설했다.

연설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발표하신 성명은 침략과 전쟁의 피수이며 조선인민의 절친지원수인 미제를 최후멸망의 구렁텅이에 처박기 위한 반미대결전에 총결기하여 싸이고쟁인 천후의 현을 기어 이 불고 영웅조선의 본대를 남김없이 떨치고야말로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의 활화산 같은 분출이라고 밝혔다.

그들은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하고 공화국을 완전히 떠벌시키겠다는 놈들의 망령두루 트러프의 정신병적인 망언은 조선이라는 사회주의강령보루를 눈에는 가시처럼

로써 적들의 악랄한 핵전쟁도발과 제세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릴것이라고 그들은 말했다.

그들은 도안의 로동적위군 전투원들이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혁명적경각성을 더욱 높이며 만일 적들이 우리의 하늘과 땅, 바다에 단 한점의 불꽃이라도 뿜기다면 진민항전의 앞장에서 가슴스러운 침략의 무리를 씨종자도 없이 박멸해버릴것이라고 말했다.

연설자들은 청년전위들이 도안의 중요대상건설장에서 새로운 영웅청년신화들을 끊임없이 창조하며 조국보위전의 주력부대, 사회주의조국수호전의 걸사대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감에 대하여 강조했다.

연설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발표하신 성명은 침략과 전쟁의 피수이며 조선인민의 절친지원수인 미제를 최후멸망의 구렁텅이에 처박기 위한 반미대결전에 총결기하여 싸이고쟁인 천후의 현을 기어 이 불고 영웅조선의 본대를 남김없이 떨치고야말로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의 활화산 같은 분출이라고 밝혔다.

그들은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하고 공화국을 완전히 떠벌시키겠다는 놈들의 망령두루 트러프의 정신병적인 망언은 조선이라는 사회주의강령보루를 눈에는 가시처럼

로써 적들의 악랄한 핵전쟁도발과 제세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릴것이라고 그들은 말했다.

그들은 도안의 로동적위군 전투원들이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혁명적경각성을 더욱 높이며 만일 적들이 우리의 하늘과 땅, 바다에 단 한점의 불꽃이라도 뿜기다면 진민항전의 앞장에서 가슴스러운 침략의 무리를 씨종자도 없이 박멸해버릴것이라고 말했다.

연설자들은 청년전위들이 도안의 중요대상건설장에서 새로운 영웅청년신화들을 끊임없이 창조하며 조국보위전의 주력부대, 사회주의조국수호전의 걸사대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감에 대하여 강조했다.

연설자들은 도안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이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나가는 우리 공화국을 암살하려고 온갖 악랄하고 비열한 책동을 다하고도 모자라 전대미문의 민족멸살까지 노리고있는 불구대천의 원수 미제에게 종국적멸망을 안기고야말 복수심으로 가슴 불태우고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온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유엔무대에서 우리 국가의 《완전파괴》라는 약탈을 쫓아낸 미제식인종무리의 히스테리적인 망말은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추호도 용납할수 없는 최대의 모욕이며 로블적인 선전포고라고 강조했다.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투철한 반세계계급의식과 조국수호정신으로 더욱 끈끈히 무장하며 관가벼움의 그늘이 오면 원수적멸의 성전에 걸연히 면치나 침략자 미제의 더러운 술통을 단애에 끌어 버리고 최후승리의 그날을 앞당겨올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발표하신 성명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발표하신 성명은 침략과 전쟁의 피수이며 조선인민의 절친지원수인 미제를 최후멸망의 구렁텅이에 처박기 위한 반미대결전에 총결기하여 싸이고쟁인 천후의 현을 기어 이 불고 영웅조선의 본대를 남김없이 떨치고야말로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의 활화산 같은 분출이라고 밝혔다.

그들은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하고 공화국을 완전히 떠벌시키겠다는 놈들의 망령두루 트러프의 정신병적인 망언은 조선이라는 사회주의강령보루를 눈에는 가시처럼

로써 적들의 악랄한 핵전쟁도발과 제세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릴것이라고 그들은 말했다.

그들은 도안의 로동적위군 전투원들이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혁명적경각성을 더욱 높이며 만일 적들이 우리의 하늘과 땅, 바다에 단 한점의 불꽃이라도 뿜기다면 진민항전의 앞장에서 가슴스러운 침략의 무리를 씨종자도 없이 박멸해버릴것이라고 말했다.

연설자들은 청년전위들이 도안의 중요대상건설장에서 새로운 영웅청년신화들을 끊임없이 창조하며 조국보위전의 주력부대, 사회주의조국수호전의 걸사대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감에 대하여 강조했다.

연설자들은 도안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이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나가는 우리 공화국을 암살하려고 온갖 악랄하고 비열한 책동을 다하고도 모자라 전대미문의 민족멸살까지 노리고있는 불구대천의 원수 미제에게 종국적멸망을 안기고야말 복수심으로 가슴 불태우고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온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유엔무대에서 우리 국가의 《완전파괴》라는 약탈을 쫓아낸 미제식인종무리의 히스테리적인 망말은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추호도 용납할수 없는 최대의 모욕이며 로블적인 선전포고라고 강조했다.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투철한 반세계계급의식과 조국수호정신으로 더욱 끈끈히 무장하며 관가벼움의 그늘이 오면 원수적멸의 성전에 걸연히 면치나 침략자 미제의 더러운 술통을 단애에 끌어 버리고 최후승리의 그날을 앞당겨올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사회주의의 승리적 진전을 절대로 멈춰 세울수 없다고 강조했다.

우리의 당의 병진로선을 높이 받들고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과 20년전략을 위한 대고조전군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적들의 전쟁도발책동과 제세봉쇄를 물거품으로 만들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능동근로자들이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선참호를 지켜 선 책임감을 안고 당면한 가을철이와 날날멀거리를 다그쳐 당과 수령, 사회주의조국을 끝까지 믿음직하게 받들어 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도안의 모든 로동적위군 전투원들이 당의 진민주장화, 전국교세화방침을 받들어 한손에는 총을, 다른 한손에는 마지와 낫과 북을 틀어쥐고 적들의 침략책동을 무자비하게 짓부셔버리며 자기 고향과 마을, 공장과 일터를 굳건히 지켜나감에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연설자들은 도안의 청년들이 항일혁명선원들의 고귀한 투쟁정신과 1950년대 영웅전사들의 조국수호정신을 본받아 우리 혁명의 수뇌부를 한복속마셔 걸사용위하며 존엄한 결전의 시각이 닥쳐온다면 당과 수령, 조국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영웅하게 싸워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원도에서 강원도군중집회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의 성명을 막대막 도당위원회 위원장이 낭독함에 이어 도당위원회 부위원장 문명호,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한상준, 로동적위군 지휘관 김연애, 도청년동맹위원회 비서 심영준이 연설했다.

3 면 으 로 계 속



# 《만리마시대 대비약의 기상이 내려치는 공연》, 《천만심장을 격동시키는 최상의 예술》

## 공훈국가합창단, 모란봉악단, 왕재산예술단 음악무용종합공연을 본 함경남도인민들의 폭풍같은 반향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의 마지막 승선을 향한 만리마대고조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는 당의 대동지구 함흥시가 공훈국가합창단, 모란봉악단, 왕재산예술단의 음악무용종합공연연말맞이로 활짝 열리고있다.

사회주의 승리의 전진군을 열어나가는 혁명적신념의 불길인 함남의 불길이다. 이 불길은 본다면 최후승리를 선언하는 장대한 음악로성에 흔미대신하여 기적 초풍화였다.

우리모두의 가슴마다에 천백대의 함을 안겨준 승리의 전진군을 높이 부르며 함남의 불길을 지져올린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대진군의 승전포성을 단발적으로 울려 퍼지려는 제재악파동용 불거림으로 만들어버렸다.

국가과학원 함흥분원 연구사 한영진은 흥분된 심정을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공연은 본 흥격으로 총체적 마음을 진정할 길이 없어 함흥시의 밤거리를 오대도록 거닐었다.

특히 공연무대에 올려져진 설화시 《대 눈이 타오르라 함남의 불길이어!》의 무절구절을 되새겨볼수록 로동계급의 대적군이 사는 함남도를 잘사는 도가 되게 하리라 그토록 마음속으로 외치던 수평년들의 로고와 헌신이 어려웠고 함남의 불길이 대혁신, 대비약의 부파로 더욱 거세차게 타오르도록 이끌어주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이 가슴뜨겁게 안겨와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우리 수평년과 장군님의 한평생의 자취가 맥맥히 어려웠고 우리 원수님의 뜨거운 애비정성이 넘쳐흐르는 이 땅을 보다 살기 좋은 인민의 무릉도원을 꾸려나가는 데서 과학자로서의 사랑과 본분을 다해나갈 결심이 더욱 굳어진다.

함경남도청년동맹위원회 1비서 김철현은 공연의 매 풍류들이 당중앙과 운명의 피줄을 잇고 사는 우리 인민과 청년들의 심정을 그

대로 걸친 감동적인 화폭이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공연을 보면서 자신에서는 사회주의수로 전의 최전방에서 불면불후의 애국헌신과 로고를 바치시면서도 우리들에게 이렇듯 훌륭한 무대를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이 가슴이 찢어지는 것을 어찌할수 없었다.

우리 함남인민들에게 인제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을 심장같이 간직하고 도인의 청년들이 지역경제의 창조제전과 빈미최후성전에서 영웅정년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펼쳐도록 하였다.

공훈국가합창단, 모란봉악단, 왕재산예술단의 음악무용종합공연은 나라의 대급무화 학공연기지인 2.8비날론연합기업을 150%로 넘쳐 수행한 기쁨을 안고 극장에 들어섰다.

그들은 온몸에 새힘이 솟고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공연이야말로 일심단정의 불거림처럼, 자력경제의 혁명정신으로 새로운 만리마속도를 창조하며 끊임없이 비약하는 내 조국의 힘찬 기상이 악동하는 공연이라고 격동된 심정을 터지였다.

2.8비날론연합기업을 직장장 고평성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가슴가득 차올라 눈물이 뜨기 시작했다, 비날론속도로 세상을 날아온 그 전통, 본래로 주제비날론속도를 안아오르며 만리마선구자대회를 자랑스럽게, 멋있게 들어섰다라고 말했다.

함남비날론연합기업을 로동자 유명화의 심정도 다들바 없었다.

그는 공연무대에 비료는 곧 쌀이고 쌀은

본 사회주의이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가 정중히 모셔질 때 사회주의수로 전의 제1세대 제1선람을 농업근로자들과 함께 지어겠다는 자각으로 지도 모르게 어깨가 무거워졌다고 하면서 농연전선에 더 많은 비료를 보내주기 위한 오늘에 대고조 전후에서 기적과 위훈을 새겨갈 결의를 피력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국보급의 예술단체 배우들에게 인제출 축하의 꽃다발을 증선성으로 마련하자고 온 공장의 로동계급이 떨쳐일어났다고 하면서 흥남전구공장 부지사장 최진현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전구혁신의 주체화실현에서 이룩한 성과에 또대하여 전구실현용선성파매일 150%로 넘쳐 수행한 기쁨을 안고 극장에 들어섰다.

공연을 보니 함남의 불길이 타오른 땅에서 사는 우리가 아직은 해놓은 일이 너무도 적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혁명의 전진군을 영웅적 집일성-경정일로동계급의 투쟁분배를 남김없이 펼쳐며 더 빨리, 더 힘차게 내달려 만리마선구자대회를 승리자의 대회로 빛내겠다.

서호수산사업소 선장 최동민은 공연은 인민의 품과 리상을 꽃피워가는 어머니당의 사랑을 노래하고있다고 하면서 마음속 진정을 터놓았다.

모든 풍류들이 그려하지만 너성중장 《바다 만풍기》는 수산부에서 일하는 너의 마음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보구엔 만년의 배고픔으로 선장엔 물고기 가득 웃음도 절로 난다는 흥겨운 민요의 선율은 만년기를 더 높이 날려 온 나라에 사회주의바다항구를 더해줄것을 바라는 조국

과 인민의 당부로 나의 가슴속에 새겨졌다.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원수들의 책동이 악랄해질수록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배배, 천배로 가다듬고 진격의 나팔수들의 힘찬 음악로성에 만년의 배고픔소리로 화답해나갔다.

우리 공화국을 앞살리려는 미국놈들의 지탄발광이 극도에 달하고있는 때에 이처럼 정신이 번쩍 드는 공연을 보고나니 무척의 힘이 솟아올라나고 한 함흥은하리복공장 로동자 주정희의 감흥 또한 컸다.

그는 너성중장 《조국과 나》는 오늘에 만리마시대에 어떻게 살며 일해야 하는가를 다시금 새겨안게 하였다 하면서 어머니장군님의 위대한 신장에서 나오는 함남의 불길을 기적의 불화로 추켜들고 우리 원수님을 절사옹위하는 승정의 불길로 더 새지게 타오르게 하는데 힘과 열정을 아낌없이 다 바치겠다고 결의하였다.

함경남도예술단 연출가 최용남은 공연을 보고나니 흥분을 억제할수 없다. 내가 상상했던것보다 훨씬 더 훌륭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술적인 심정을 말한다면 같은 예술인으로서 배우들의 높은 예술적기량에 만났다기보다는 완전히 탄복하였다.

뛰어난 연주기량과 세련된 풍동, 예인 안상, 혁명적정신과 전투적기백이 넘치는 선율 등으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명도라라 자력경제의 기치높이 최망한 때인 오늘에 마중해나가는 우리들의 투쟁과 생활, 조국의 박한 숨결을 생동하게 보여주었다.

사상에술적으로 완벽한 공연무대를 펼쳐 주체공원의 우월한 풍운을 높이 울리며 우리 당을 떠라 승리의 신심높이 영원히 한 길을 가고갈 우리 함남도인민들의 투쟁열

의를 무한히 복돋아준 예술인들에게 진심으로 되는 축하의 인사를 보냈다.

함흥시 성천구역 동문동초급녀맹위원회 위원장 주정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의도를 잘 알았을 때 만년의 배고픔소리를 제의기수, 전로병들이 과연 다르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공연무대에 펼쳐지는 하나하나의 풍류들이 우리의 심장마다에 혁명열, 투쟁열을 더해주었다.

지금 미래는 우리 국가의 《원전과피》라는 히스테리적인 말만을 늘어놓으며 우리의 사상과 제도, 우리 인민을 말살하기 위해 미쳐날뛰고있다.

정세가 엄중하고 천만시대가 앞을 가로막을수록 지역경제의 위력으로 미래의 단말타적발악을 쳐갈기며 사회주의명마를 향하여 총돌려나가는 우리의 신심을 더 굳게 버려준 노래들은 이 가슴속에 영원한 혁명의 전진군으로 울릴것이다.

함흥시 성천구역의 신중2동에서 사는 문명희는 이처럼 멋있는 공연은 처음 보았다. 지금과 같이 긴장한 정세속에서 이런 공연을 보고나니 미국놈들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이겼다는 확신이 더욱 굳어졌다. 특히 무대배경에 주체조선의 수조란이 미국군을 불바다로 만드는 장면을 보는 순간에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환성을 울리었다. 정말이지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펼쳐놓은 최고의 공연이었다고 격정을 터지였다.

시대의 전군과, 장대한 음악로성과 더불어 만미대결전, 사회주의강국건설대전에서 최후의 승리가 되려는 신념과 맹세의 목소리는 함남땅을 진감하며 끝없이 울려나오고있다.

《조선중앙통신》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모잠비끄해방전선당 제11차대회에 축전을 보내었다

마루도

#### 모잠비끄해방전선당 제11차대회 앞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모잠비끄해방전선당 제11차대회를 열렬히 축하하면서 대회를 통하여 귀 당 중앙위원회와 전제 당원들에게 따뜻하고 원선적인 인사를 보냈다.

모잠비끄해방전선당은 창건후 지난 50여년간 간고한 투쟁투쟁을 벌려 나라의 독립을 쟁취하고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며 나라의 정치안정과 사회경제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우리는 모잠비끄해방전선당 제11차대회가 나라의 자주적발전과 민영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성과를 보다 공고히 하며 당을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는 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 기회에 반제자주를 위한 공동의 투쟁에서 맺어진 우리 두 당사자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도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에 맞게 계속 좋게 발전되리라고 믿으면서 귀 당 제11차대회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을것을 중심으로 축원합니다.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주제106(2017)년 9월 26일

병 양

연안군중소형발전소 운영 및 건설대동조직

불굴의 혁명신념을 깊이 간직하도록

중경대에 반들어가고 열렬히 호소하

한 일군은 유엔총회에서 우리 국가의 《원전과피》라는 전대미문의 무지막지한 망발을 쟁취한 트럼프놈을 철대로 용서할수 없다고 하면서 철재고도에서도 일등어까지 형식과 방명으로 신속있게 진행해나가고있다.

얼마전 로동자들과 함께한

한 일군은 유엔총회에서 우리 국가의 《원전과피》라는 전대미문의 무지막지한 망발을 쟁취한 트럼프놈을 철대로 용서할수 없다고 하면서 철재고도에서도 일등어까지 형식과 방명으로 신속있게 진행해나가고있다.

얼마전 로동자들과 함께한

로동신문 김 립 식

### 박봉주 동지

#### 세포지구 축산기지 운영실태 현지료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

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박봉주 동지가 세포지구 축산기지의 운영 실태를 현지에서 료해하였다.

세포지구 축산기지의 입건물과 근로자들은 우리 공화국을 앞살리려고 최후발악하는 남강

도 미래에 대한 법적의 보부의 지를 안고 지역경제의 기치높이 국가경제발전 5년전략과지를 집행하기 위한 투쟁에 헌신함같이 열려나갔다.

박봉주동지는 애국소속장과 양모장, 젓소목장, 고기 가공공장 등을 돌아보면서 당의 승고한 뜻을 말하고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은 고기와 젓가공제품을 안겨주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있는 이력 입건물과 근로자들을 고무해주었다.

세포군민발전소, 평강군민발전소건설정형을 현지에서 료해하면서 그는 물적대원들과 지휘관들이 강원도정선의 향로차들 함께 대성건설에서 만리마속도 상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켜올림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현지에서 진행된 회의에서는 세포지구 축산기지를 보다 실속있게 운영하며 발전소건설을 더욱 다그치기 위한 대책적 문제들이 토의되었다.

《조선중앙통신》



# 위대한 병진의 보검을 억세게 틀어쥐고 미제의 단말마적인 핵전쟁광증을 무자비하게 쳐갈기자

## 반미대결전에 총결기하여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평안북도, 황해북도, 강원도군중집회 진행

### 1 면 에서 계속

연설자들은 남강도 미제가 신성하고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에 역대 가장 크악한 선전포고로 해온 이상 사상최고의 초강경대응태세로 그 대가를 배배, 원대로 받아냄으로써 백년속적 미제와 만드시 걸판을 내고야말것이라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주님의 백승의 명도가 있는 한 천하대적이 텨머들어도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며 우리의 앞길은 막을 자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는것이 바로

원안심장에 새겨진 길대법원의 진리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모든 일꾼들이 혁명군의 지휘관들처럼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전구마다에서 경제조직사업과 지휘를 최선적으로 해나가는 야전형의 지휘관이 되며 인민에 대한 철사복무정신을 높이 발휘하는 인민의 참된 총부여 필배 대하여 언급하였다.

도안의 근로자들은 강원도정신장조자를 담겨 지역경쟁의 기지를 더욱 높이 불고 인민경제 선행부흥과 군민발전에전심정착을

비롯한 중요전투장소에서 만리마속도창조열풍을 세차례 일으켜 적들의 야만적인 제세봉쇄에 파열구를 내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오직 당과 수령만을 믿고 전회의 불길속을 헤쳐는 믿음종님과 남강마을대성령처럼 최후승리에 대한 신심을 굳게 간직하고 미제가 감히 텨머본다면 인민군대와 한진호에서 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소탕해버릴배 대하여 언급하였다.

로동적외군 부대들이 전투정치훈련을 강화하여 수평적사용정신으로 만장약

된 당의 혁명적주장력, 최고사령관의 무장대으로서의 성스러운 사명을 훌륭히 수행해나가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연설자들은 청년들이 세상에 불도 없는 위대한 청년강국의 주인,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명장들답게 침략의 무리들이 선봉장을 한다던 악의 총본산 미국을 지구상에서 총두리째 불어내기 위한 삼진의 맨 앞장서서 청년영웅이 필배 대하여 강조하였다.

집회들은 《총성의 한길로 가고거리라》

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이러 군중시위들이 있었다. 전체 시위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를 경사송위하는 총곡선이 되자!》, 《미제가 텨머본다면 지구상에서 영영 쫓아버리자!》 등의 구호들이 쇄여진 프랑카드를 들고 흰수건위의 함성을 우렁차게 외치며 광창들과 거리불을 보무당량히 행진해나갔다.

그들의 열골마다에는 년대와 세기를 이어 우리의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불어주고 조선인민들을 멸살하기 위해

리를 불고 남기는 미국쟁대무리들의 정수리에 가장 준엄한 질주를 내리고야말 떨적의 기상이 어려되었다.

평안북도, 황해북도, 강원도군중집회들은 회세의 원승명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계시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혁명적신념을 심장마다에 쏘아박고 위대한 병진의 기치, 지역경쟁의 기치, 인민대결전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달겨나감 우리 인민의 철세의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주체과학교육의 최고전당이 나아갈 앞길을 밝힌 불멸의 지침

주체조선의 원승물들의 기상과 무진약장한 국력이 만천하를 질감시키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혁명인 새시대 김일성종합대학의 기본임무에 대하여》를 발표하신 1를 못잊게 맞이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제 105 (2016)년 9월 27일에 발표하신 이 로작에서 김일성종합대학의 70년 역사를 긍지높이 총화하시고 주체혁명의 새시대에 대학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었다. 대학의 기본임무와 대학건설의 총적방향, 그 실현을 위한 과업과 방도를 비롯하여 로작에서 제시된 사상리론들은 김일성종합대학을 민족간부육성의 중심지로서, 주체과학교육의 최고전당으로 끝없이 빛내이게 하는 위대한 설계도이며 백승의 기치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오늘 김일성종합대학에는 주체혁명인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당과 혁명에 총심하고 높은 실력을 지닌 혁명인재들을 더 많이 육성하며 첨단과학기술연구성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주도함으로써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 화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 성스러운 임무가 나서고있습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로작에서 수령의 대학으로서의 혁명적성격과 본래를 변함없이 고수하고 세대에 명성을 떨치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대학으로 강화발전시키시기를 주체혁명의 새시대 김일성종합대학건설의 총적방향으로 규정해주시고 당과 국가의 원시안사를 총모시는 바보신 속에서도 대학사업전반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명도 밑에 당 제7차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만리마대진군의 앞길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켜나가는 파정에 우리는 로작의 사상리론들이 김일성종합대학을 세계일류급 대학으로 빛내어나가게 하는 생명선이라는것을 심장으로 질감하게 되었다.

로작은 김일성종합대학의 제일생명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세대와 세기를 이어 빛내어나가게 하는 기념비적 문헌이다.

김일성종합대학의 제일생명은 당과 수령에 대한 총심성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로작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주체적인 교육사상과 리론, 유산을 향구적으로 물려주고나갈때 대한 문제, 당의 유일적영도체제를 세우는 사업을 심화시킬때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당과 수령에 대한 총심성의 진통을 빛내어나가는데 나서신 모든 문제들을 뚜렷이 밝혀주시었다.

대학에서는 로작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교수와 참관을 비롯한 모든 계기와 공성들을 위해 수평적정신을 영원히 높이 우리러모시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명도업적을 옹호고수하며 수령님들의 유산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쳤다. 특히 수령의 대학으로서의 긍지높은 전통을 빛나게 계승하여 전교정에 당중앙집사용위, 당정책집사관들의 혁명적기풍이 꼭 차넘치게 하였다.

모든 교직원, 학생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더 밝게 모시며 하나의 대학명사적지구에 대학자리를 훌륭히 꾸리는 사업에 정성을 다 바치고 혁명사적관, 혁명사적지물들에 대한 참관과 백두산지구 혁명정치적담사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으며 정

보과대학과 물리학부, 전자자동화학과에서 새 교사이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실용을 중중히 무리것을 비롯하여 온 대학이 당과 수령을 총심으로 받들러는 입념으로 뜨겁게 끓어번졌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산을 끝까지 관철하며 당에서 준 과업을 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최상의 수준에서 관철해나가는 파정에 우리는 당의 사상과 명도에 대한 총심성을 제일생명으로 틀어쥐고나감 때 대학을 영원히 수령님들의 대학으로 강화발전시킬수 있다는 철리를 더욱 벅추웠고 세기 되었다.

로작은 김일성종합대학을 세계일류급 대학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길을 뚜렷이 명시한 강령적문헌이다.

세계일류급대학은 연구형대학이다. 교원들이 강대하고 연구사업에 하지 않으면 최첨단과학기술을 할 수 없듯이 교육의 질도 높일 수 없다. 교원들이 최첨단과학기술의 1번수가 되어야 많은 첨단과학기술 성과가 이룩할수 있으며 자신들의 실력을 높이 세계적인 인재들도 키워낼수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로작에서 교육과 과학연구를 밀접히 결합시키고 창조형인재육성과 원리과학리론, 기술창조를 기본으로 한데 대한 문제, 교육과 과학연구, 생산의 일체화 될 실현함에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연구사업의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인재 육성을 명철하게 밝혀주시었다.

대학에서는 로작에서 제시된 과업들은 100년도에 세부화하고 그 과업들을 최첨단과정에의 수준에서 관철할 비상히 높은 목표를 세웠으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대담하고 용이 크게 벌여나갔. 다른 때보다 몇배로 높아진 전투투목이었지만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은 전사의 의지와 비상한 창조정

신으로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 불 떨리며 끊임없는 대비약적혁신을 일으켰다.

모든 단과대학, 학부들에서 정치사상과목들 비롯한 1300여개의 학과목들을 전면검토하고 당정책, 원리, 총화, 총화하는 사업을 완성하여 교육내용의 정치사상성을 철저히 보장하였으며 실천성기증을 높이 보장하였으며 실천성기증을 높이는 원칙에서 수백개의 학과목들을 통괄, 정리함으로써 교육강령의 실용화, 총합화, 현대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였다. 전자자동화학과에서 새로 무리 각종 현대적실험기구들을 입식으로 갖춘 다기능화된 교실들과 물리학부에서 새로 건설한 디지털컴퓨터실험실에서 강의와 실천성기, 리론교육과 실험교육, 교육과 과학연구가 밀접히 결합된 새로운 교수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수배연구과제들을 분과로부터 박사원까지의 원승과정인도로 작성하여 적용하고있을것을 비롯하여 대학에서 1번수가 되어야 많은 첨단과학기술 성과가 이룩할수 있으며 자신들의 실력을 높이 세계적인 인재들을 육성할수 있도록 하였다.

만리마속도창조의 열풍이 세차례 끓어번진 이 기간에 대학에서는 산림과학대학과 수심계의 학과, 연구실들을 새로 내내내 이어 우주항공 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과정인관과 교수요목을 완성하고 세계적인 학자들과 전공분야의 권위자들을 많은 모범교수자들과 편목있는 연구집단들을 배출하였으며 원격교육대학의 학과와 학생수를 높여 전민 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첨단과학기술과 기술창조를 과학연구사업의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위대성도서들을 비롯한 2000여건의 각종 도

서와 교과서, 참고서와 문헌작품, 문 등을 높은 수준에서 질필승환하였으며 방사열효용신기, 리안천이강, CNC플라스마절단기와 같은 첨단제품들을 제작하는것과 동시에 그라펜제조의 응용과 같은 첨단과학기술분야들을 개척하고 지하초염수에 의한 소금생산, 삼지연군에서 도입한것을 비롯하여 수직전의 파공동연기기를 활발히 진행 하였고 《김일성종합대학보》를 국가적인 전문학술잡지로 정하고 세계적인 학술잡지로 발전시키며 대학적인 정상시성적심시간계제프로그램을 완성도입하여 학생들의 학습 열열, 경쟁열을 비상히 높인것을 비롯하여 지난 1년간 대학에서는 전례없는 변혁적성과를 이룩하였다.

이 과정에 우리는 연구형대학건설의 체제와 방법을 확립하고 높은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로작의 사상리론들을 철저히 구현할 때 짧은 기간에 일류급대학의 주요지표들을 세계적수준에서 돌파할수 있다는것을 가슴이 새기게 되었다. 로작은 우리의 힘과 기술로 세계

일류급대학건설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높은 수준에서 질필승환하되 경, CNC플라스마절단기와 같은 첨단제품들을 제작하는것과 동시에 그라펜제조의 응용과 같은 첨단과학기술분야들을 개척하고 지하초염수에 의한 소금생산, 삼지연군에서 도입한것을 비롯하여 수직전의 파공동연기기를 활발히 진행 하였고 《김일성종합대학보》를 국가적인 전문학술잡지로 정하고 세계적인 학술잡지로 발전시키며 대학적인 정상시성적심시간계제프로그램을 완성도입하여 학생들의 학습 열열, 경쟁열을 비상히 높인것을 비롯하여 지난 1년간 대학에서는 전례없는 변혁적성과를 이룩하였다.

이 과정에 우리는 연구형대학건설의 체제와 방법을 확립하고 높은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로작의 사상리론들을 철저히 구현할 때 짧은 기간에 일류급대학의 주요지표들을 세계적수준에서 돌파할수 있다는것을 가슴이 새기게 되었다. 로작은 우리의 힘과 기술로 세계

일류급대학건설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높은 수준에서 질필승환하되 경, CNC플라스마절단기와 같은 첨단제품들을 제작하는것과 동시에 그라펜제조의 응용과 같은 첨단과학기술분야들을 개척하고 지하초염수에 의한 소금생산, 삼지연군에서 도입한것을 비롯하여 수직전의 파공동연기기를 활발히 진행 하였고 《김일성종합대학보》를 국가적인 전문학술잡지로 정하고 세계적인 학술잡지로 발전시키며 대학적인 정상시성적심시간계제프로그램을 완성도입하여 학생들의 학습 열열, 경쟁열을 비상히 높인것을 비롯하여 지난 1년간 대학에서는 전례없는 변혁적성과를 이룩하였다.

이 과정에 우리는 연구형대학건설의 체제와 방법을 확립하고 높은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로작의 사상리론들을 철저히 구현할 때 짧은 기간에 일류급대학의 주요지표들을 세계적수준에서 돌파할수 있다는것을 가슴이 새기게 되었다. 로작은 우리의 힘과 기술로 세계

이 과정에 우리는 연구형대학건설의 체제와 방법을 확립하고 높은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로작의 사상리론들을 철저히 구현할 때 짧은 기간에 일류급대학의 주요지표들을 세계적수준에서 돌파할수 있다는것을 가슴이 새기게 되었다. 로작은 우리의 힘과 기술로 세계

이 과정에 우리는 연구형대학건설의 체제와 방법을 확립하고 높은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로작의 사상리론들을 철저히 구현할 때 짧은 기간에 일류급대학의 주요지표들을 세계적수준에서 돌파할수 있다는것을 가슴이 새기게 되었다. 로작은 우리의 힘과 기술로 세계

【조선중앙통신】





